

# 禪의 세계로 성큼 다가선다

## 한형조교수 '무문관, 혹은 너는 누구냐'

도서출판 여시아문 '주머니속 시리즈' 선편 둘째권

권인 한글 세대를 위한 선불교 강의 <무문관, 혹은 너는 누구냐>는 오랫동안 선가에만 전해 오던 선문답 48칙을 현대인의 성향에 맞게 풀었다. 저자는 한형조 교수(한국정신문화연구원).

옛 조사들의 선문답을 원문풀이가 아닌 선불교에 대한 이해를 넓히면서 마음공부를 할 수 있게끔 풀이한 것이 특징. 여기에 독자들의 심심증상 및 수행과 어긋라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조사스님들의 선문답을 직설적으로 풀이하는 데 그치지 않고 불법의 심오함과 삶의 지혜를 함께 증강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어 '수행 필독서'로서도 부족함이 없다.

35칙 '주주의 잣나무(달마가 동쪽

로 이렇게 못한다. 망상이 명상을 집요하게 방해하기 때문이다.'

만법귀일(萬法歸一). 선에서의 모든 불음은 하나로 귀착된다고 한다. "너는 누구냐?" 무문관은 그 대답될 수 없는 불음(無門)을 향한 선의 전형적 접근이다. 문 아닌 문을 두드리므로써 선의 역사와 이념, 방법과 한계를 읽을 수 있는 것이다. 또 이 책에는 선에 익숙치 않은 독자들을 위해 '불교에 있어 선이 출현하게 된 곡절'과 '초조달마에서부터 대제종교에 이르기까지 선종법계도 등'까지도



일목요연하게 서술, 선의 역사와 사상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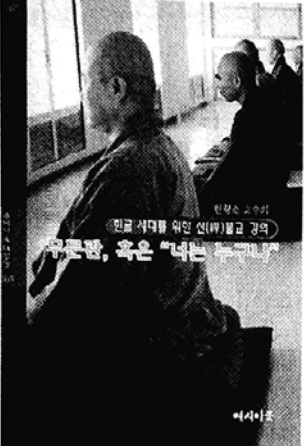
한형조 교수는 "무문관은 엄밀한 의미에서 책이 아니다. 학인들을 위해 독립적으로 제시했던 화두를 끌어

모아 엮은 것일 뿐"이라면서 "두어 번 반복해서 읽어 나가다 보면 선의 역사와 이념, 그리고 방법은 물론 그 한계까지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힌 의미의 밝혔다.

<무문관, 혹은 너는 누구냐>는 97년 4월2일(제121호)부터 98년 12월 30일(제204호)까지 현대불교신문에 연재돼 선에 관심있는 독자들의 호평을 받았다.

이 책을 펼쳐드는 독자들은 "문이 없는데 어디서 진리를 구할 것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할 것이다. 대답은 간단하다. "문이 없는 곳(無門關)에서 찾아보라". 값 6천원.

김종근 기자 (gamja@buddhapia.com)



'무문법문(無門爲法門)'. 더 이상 경전의 가르침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이후 선사들은 경전을 통째로 삼아 진리를 찾는 것은 '모래를 써서 밥을 짓고, 기왓장을 갈아 거울을 만드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라 일러왔다. 그래서 '문은 없다(無門)'라는 한마디로 선(禪) 수행을 집약하고 있다.

언어를 통한 이론적 한계와 위험을 자각한 선은 그 대안으로 공안(公案)의 체계를 수립했다.

조사들은 문자에 붙임하는 것을 금기시했지만 선수행을 초답(初踏)하는 이들에게 언어는 피할 수 없는 길이기도 하다. 원효스님은 "진리는 언어를 떠나 있지만 또한 의존하고 있다"고 설교했고, 무문 해개는 대중들을 위해 1228년 선가의 이야기 48칙을 선정, 평(評)을 달고 송(頌)을 붙여 <무문관>을 편찬했다.

<무문관>은 당시 구업(口業)을 지양하고 할 정도로 비난을 받았지만 현대인들이 선에 접근하는 지침서로 각광받고 있다.

현대는 갈수록 선불교시대 재정립되고 있다. '선 무차대회' '4박5일 단기회가 '주말선수련회' 등 각종 선관련 프로그램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일반인들이 선불교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무문관> 해설서가 나왔다.

도서출판 여시아문이 펴낸 '주머니속의 대장경 시리즈' 禪편의 두번째

### 조사들의 선문답 통해 불법의 심오함 배우고 삶의 지혜도 터득

### 선종법계 일목요연 정리

으로 간 깨달음'의 설명을 보면 이 같은 특징이 잘 나타난다. '달마의 잣나무는 일정한 대상을 가리킨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우리가 대상을 대하는 자세 자체를 환기시키는 것이다... 선에 이르기 위한 구체적인 명상방법으로 생각을 통하지 않고 대상을 바라보는 훈련을 해 볼 것을 권한다. 대상 너머로 건너뛰지 말고 대상에 사투리 하나가 되는 연습을 해 볼 것을. 1분 정도를 그럴 수 있다면 선의 비밀에 성큼 다가간 것이다. 대제



## 1만6천 인물로 읽는 한국사

정신문화연구원 '한국인물대사전' 펴내

인물관련 역사적 사건·사상도 소개

한국정신문화연구원(원장 한상진, 이하 정문연)이 상고시대 단군 왕검부터 최근 작고한 최종현 前 선경회장까지 인생의 사표로 삼을 수 있는 역사적 인물 1만6천여명을 망라한 <한국인물대사전>(전2권)을 출간했다.

이 사전은 정문연이 지난 91년 출간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 이어 한국학 관련 전문사전 편찬사업의 첫 성과물로 내놓은 것이다.

이 사전에는 불교발전에 현저한 업적을 남긴 스님을 비롯 교계 지

도자 및 한국종교 사회에 이바지한 인물, 학자·교육자, 정치인·법조인, 사회사업가, 문화·예술인, 언론인, 독립운동가 등이 총망라돼 있다. '인물로 읽는 한국사'라는 부제로 출간된 이 사전은 스님들의 이력 정보만 수록한 인명사전과는 달리 관련 기록을 폭넓게 수록해 '독서용 사전'으로 구상됐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어느 항목을 보든 그 인물과 관련된 역사적 사건의 맥락과 사상의 개략까지 파악할 수 있어, 인물을 통하여 불교역사는 물론 한국사를 이해할 수 있는 셈이다.

가나다 순으로 수록된 인물편과 업적별 세계도, 자(字) 호(號) 시호

(諡號) 일람 관직 용어 해설 등의 부록편으로 구성된 이 사전은 2천 8백30쪽에 이른다. 지금까지 나온 인물사전 가운데서 가장 방대한 규모, 기존 30권 분량의 일반 백과사전에 수록된 국내인물수도 1만 명 안팎이기 때문에 명실공히 국내 최대의 인물사전이라고 할 수 있다.

정문연은 이 사전에 대해 <삼국사기> <고려사>의 열전(列傳)과 조선시대 <국조인물고> <신증동국여지승람> 등의 맥을 이은 한국인물관계 연구서의 결정체로 대한제국 병망이후 90년만에 나온 사전다운 사전이라고 자부하고 있다. 값 19만원.

원효를 찾아서

원효를 찾아서

문화는 정신이 동반될 때 문화유산이 될 수 있다. 그렇지 못하면 역사의 흔적인 골동품에 불과하다. 우리는 골짜기마다 절을 짓고 불공을 드리며 부처님 제자의 길을 걸어왔던 민족이다. 때문에 사찰이야말로 우리 문화가 온전히 보존되고 있는 역사의 보고이다.

<원효를 찾아서>는 마산 금강정토사 주지 자원스님이 1천여곳의 사찰을 참배하고 쓴 수상집. 성지순례라고도 할 수 있다. 황룡사지와 미륵사지처럼 그 규모를 가능하기 힘든 폐사지, 지리산의 석주처럼 길목을 지키고 있는 가난한 절 사성암을 비롯 자장·원효스님 등 옛선인들의 열이 깃든 30여곳의 사찰을 골라 소개했다. 불교의 미래와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는 스님의 애정 어린 마음이 배어났다. <우리 출판사, 6천원>

구도자의 나라

인도를 '종교의 대륙'이라 부른 까닭

모든 집착에서 벗어나 해탈에 이르도록 안내하는 길잡이, 세속의 온갖 가치와 인습을 초월하여 탄생과 죽음의 무의미한 순환고리를 벗고 대자유에 이르는 것이 <베다>와 <불경>의 궁극적 목표다. 그래서 인도는 종교의 대륙이라고 불리는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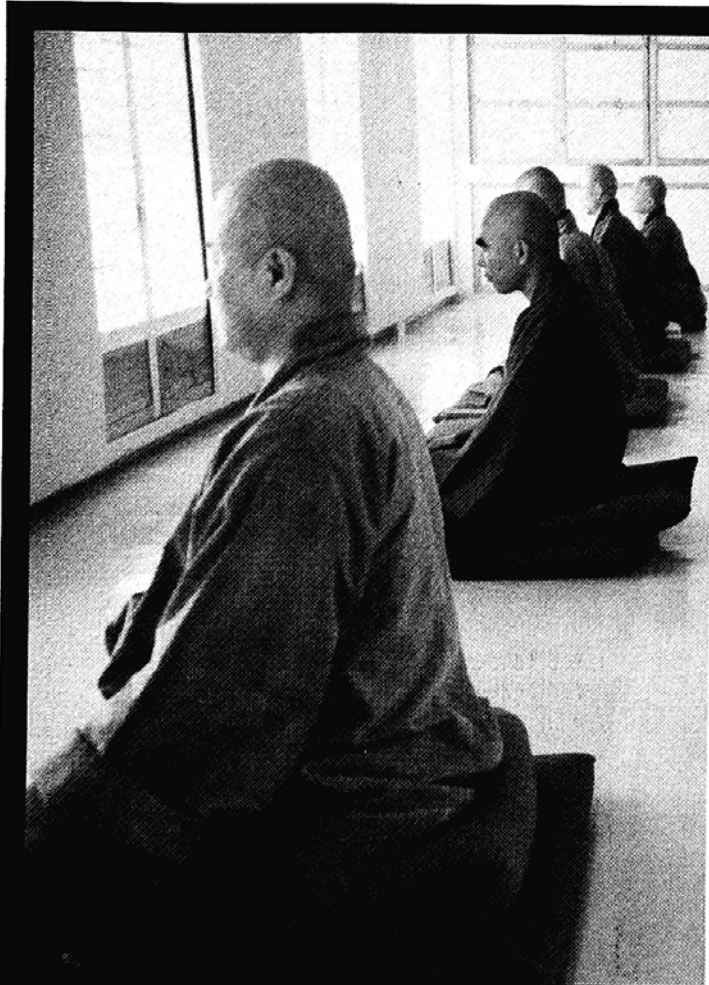
<구도자의 나라> 인도편은 힌두교의 성전인 '베다'와 불교의 '불경'이 웅만한 불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평이하게 구성돼 있다. 또 불경과 베다에 대해 더 알고 싶어하는 독자들을 위해 개론서까지 소개하는 배려도 아끼지 않았다. <구도의 나라-사서오경·도덕경>, <예언자의 나라-성경·요한>에 이어 '문명이 만든 6대 바이블' 시리즈 중 마지막 권. 세계의 주요 경전을 한데 모아 엮은 이 시리즈는 인류의 다양한 생각을 이해하고 비교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명진출판사, 8천5백원>

◇금주의 베스트블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산에는 꽃이피네(소)	법 정	동쪽나라
2	참선요지	대 선	여시아문
3	인산	재 연	문학동네
4	원효(영원한 새벽)	남 동 신	새누리
5	한국불교기독교성지	정성운의	불교시대사
6	신심명종도가 강설	성 철	장경각
7	불교인문	조계종원필부	조계종출판사
8	불자의 예절	일 타	효림
9	가슴을 적시는 부처님 말씀	성 우	민족사
10	카운슬링불교	후태기요시	시공사

구입문의:(02)737-0695



주머니속 대장경 303 - 선(禪) 여시아문은 '들은 바, 한 치의 어긋남도 없이 전해졌다'는 정신으로 시대의 빛이 될 책들을 만들겠습니다

## 한형조 교수의 한글 세대를 위한 선(禪)불교 강의 무문관 혹은 "너는 누구냐"

선(禪)은 논리와 변증을 극도로 싫어한다. 상징과 역설로 비유다가 성에 안 치면 직접 행동으로 나선다. 코를 비우고 발등을 쫓으며, 몸통이 세례를 주고 손가락을 자른다.

그 동안 선(禪)을 지나치게 교(敎)의 <혁신>의 측면에서만 바라보았다. 그렇지만 선은 교(敎)의 <연장>이기도 하다. 선의 혁명은 소송에서 대승에 이르는 난만한 교학의 발전 그 정점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 점을 놓치면 선의 활발한 거리를 정당하게 읽을 수 없다. 이 글은 선이 <언어를 버리기까지>의 고민과 배경을 살피고 그 불가해한 언설에 담긴 이론과 맥락을 탐색해 나간다.

한 화두(話頭)집인 '무문관(無門關)'을 통해 선의(역사)와 <이념>, <방법>과 <한계>를 읽는다. '무문관'은 선의 궁극적인 화두, 즉 "너는 누구냐"라는 실존적 물음에 대한 선의 전형적 접근을 담고 있다.

선을 역사적이고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 근대군대 장문의 해설을 끼워 넣었다. 이들을 기적으로 나머지 강의를 참고하면 선의 대강을 가늠할 수 있다.

선의 문헌은 역설적이게도 방대하기 그지없다. 그 가운데 수행자들의 실지 수련을 위해 간명하게 정리

'무문관'은 엄밀한 의미에서 책이 아니다. 학인들을 위해 독자적으로 제시했던 화두들을 끌어모아 엮은 것일 뿐이다. 그 편집의 체계를 존중하여 강의 또한 글이 역사와 사승의 선수를 정리하지 않았고, 또 선의 정신에 입각해 해설 또한 단편과 감상을 주제로 했다. 이런 두서없는(?) 강의에 불편해 할 사람들, 즉

이 글은 <번역>과 <해설> 부분으로 되어 있다. 두 부분 모두 근대교육을 받은 세대들을 위한 온전한 현대어이다. 필자 자신 현문을 외국어로 익힌 한글 세대로서 당연한 선택이고 앞으로도 그래야 한다.

한형조 지음/ 66 변형 334쪽 / 값 6000원